



도내 폭염 장기화... 추가 보완책 마련

도, 추진상황 긴급대책회의
취약계층 보호 등 대응 강화
용수 공급상황 지속 점검 등
가뭄 대응에도 총력 기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과 14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가뭄 대응 추진상황 긴급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폭염 장기화로 온열질환과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고, 강수 부족에 따른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대응 추진 상황 △취약계층 보호대책 △농업·축산 분야 피해 예방 △가뭄 대응 및 용수 관리 △시·군별 대응 강화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홀몸노인과 기저질환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지역 안전망을 활용한 보호체계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현장 등 야외 작업장의 휴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과 14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가뭄 대응 추진상황 긴급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식시간 준수 여부와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환기·급수 관리 등 폭염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저수율과 용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과 협력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폭염과 가뭄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시·군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신속한 대응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도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시·군은 단체장을 중심으로 읍면동까지 행정력이 빈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2026 전주가맥축제'를 하루 앞둔 5일, 전주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합동으로 전북대학교 복합경기장 일원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오늘 '전주가맥축제' 개막

8일까지 전북대 복합경기장 일원서... 공연·이벤트 진행
시, 전북자치도·경찰·소방 등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 나서

한여름 밤 전주만의 시원한 가계맥주와 업소별 대표 안주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전주의 대표적 여름 축제인 '2026 전주가맥축제'가 펼쳐진다.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성일)가 주관하는 '2026 전주가맥축제'가 오는 8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 복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12주년을 맞이한 '전주가맥축제'는 전주만의 독특한 문화인 '가계맥주'를 주제로,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하이트진로, 지역 가맥업체들이 함께 만들어진 전주 대표 여름축제이다. 올해 축제에서는 맛있는 가맥 안주와 당일 생산된 신선한 맥주를 맛볼 수 있으며, 행사장 주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도 진행된다.

먼저 축제 첫날인 8일에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인기가수의 공연이 준비돼 있으며, 개막식에서는 불꽃놀이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일에는 DJ 클럽파티가 진행되고, 8일에는 불꽃놀이와 모창가수가 대거 출연하는 '히든콘서트'가 펼쳐진다. 또, 행사 중간중간에 펼쳐지는 가맥자기 플래시몹과 댄스타임, 관객참여 이벤트도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 가맥축제에서는 방문객들과 지역 상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가맥축제에서 성인인증 후 받은 팔찌를 차고 전북대학교 인근 상권의 업소·축제장 내 별도 공지를 방문한 경우 뽑기 이벤트와 가격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즐길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2026 전주가맥축제'를 하루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복합경기장 일원에서 현장 안전 점검을 했다.

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합동점검에는 덕진경찰서와 덕진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건축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검단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토대로 △무대 및 객석 등 임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전기·가스 설비의 과부하 및 누전·누출 위험 △화재 대비 소화기 비치 및 비상 대피 동선 확보 여부 △관람객 밀집에 따른 질서 유지 및 교통 대책 △폭염 대비 쉼터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 등을 살폈다.

이와 함께 시는 △주류 판매 부스 주변의 전기 배선 노출부 덮개 보강 △관람객 주요 이동 동선과 비상 대피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등을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으며, 폭염에 대비해 쉼터 설치 및 냉방기기 확보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행사 기간 많은 방문객이 몰려 주차 공간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해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축제장 주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할 예정인 만큼, 안전하고 건전한 축제 문화 정착을 위해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만호 기자

아프리카 3개국에 '전북 스포츠 우정의 선물'

도·교육청·전북체육중고, 짐바브웨·케냐·나미비아에 총 616점 기증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전북체육중·고등학교와 함께 학생들이 기증한 스포츠 용품을 아프리카 3개국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며 스포츠를 매개로 한 국제교류와 우정을 이어간다.

도와 도교육청은 5일 전북체육중·고등학교에서 Re: Play Together, 전북 스포츠 우정의 선물' 해외 발송식을 열고, 짐바브웨·케냐·나미비아에 전달할 스포츠 용품을 발송했다. (관련사진 3면)

Re: Play Together, 전북 스포츠 우정의 선물'은 축구공과 스포츠용품

함께(Together) 다시 시작한다(Re: Play)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스포츠를 통해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우정을 실천하고, 미래 세대 간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사용했던 스포츠 용품을 해외 청소년들과 나눈다는 점에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전북이 추진하는 국제 스포츠 외교를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전북도가 국제 스포츠 교류를 이어온 짐바브웨와 나미비아 관계자들이 전북체육

중·고등학교 방문 당시 스포츠 용품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학생들이 흔쾌히 기증에 뜻을 모았고, 도와 도교육청, 학교가 함께하는 국제교류 사업으로 확대됐다.

기증 물품은 학생들이 사용했던 스포츠 장비와 이번 사업을 위해 마련한 새 제품을 포함해 축구, 태권도 사격, 양궁, 수영 등 12개 종목 616점이다.

물품은 짐바브웨 재외공관과 국제운송을 통해 각국 문화체육부와 올림픽위원회 등에 전달된 뒤 짐바브웨 '커스티 코벤트리 아카데미', 케

냐 '와이타 태권도클럽', 나미비아 MTC 홀출 청소년축구팀 등에서 활동하는 유소년 선수와 청소년들에게 배분돼 활용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우리 전북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왔던 소중한 스포츠 물품들이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추구하는 포용과 연대를 기본 가치로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영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감장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의 스포츠 정신을 실천하며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라며 "학생들의 자지만 따뜻한 마음이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가유산 야행

근대 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걸다

2026 군산 국가유산 야행

2026.08.14.(금)~08.16.(일) / 08.21.(금)~08.22.(토)

구 조선식량영단 등 군산 원도심 국가유산 일원 | 18:00~22:00

2026 군산국가유산야행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